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올해도 라마단 기간 중 테러 끊이지 않아

ISIS, 라마단 개시 앞두고 테러 감행 선동해

올해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잔혹한 테러가 줄줄이 이어졌다.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된 2017년도 라마단에는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뿐 아니라 무슬림을 겨냥한 보복성 테러까지 발생해 연일 사건 사고가 벌어졌다.

이른바 ‘피의 라마단’은 성월 시작 일 닷새 전인 지난달 22일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콘서트 도중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추종자의 자살폭탄 테러로 어린이 포함 22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다치는 사건으로 테러의 시작을 알렸다.

라마단 하루 전날인 5월 26일 이집트에서는 콕트 교도들이 탑승한 버스에 무차별 총격이 가해져 최소 29명이 사망했다. 바로 그 이틀 뒤인 5월 28일에는 이라크 바그다드 북부 대로변에서 일어난 자살폭탄 테러로 최소 10명이 사망했고, 결국 5월 31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외교 공관 밀집지에서는 폭탄이 무려 1500kg이나 실린 트럭이 폭발하면서 사망자가 150명이 넘는 올해 최악의 테러가 일어났다.

ISIS는 라마단 개시를 앞두고 세

계 전역의 추종자들에게 테러를 감행하라고 선동했다. 올해에도 유튜브를 통해 “ISIS의 땅에 올 수 없는 유럽의 이슬람교도 형제들이여, (유럽)본토에서 그들의 집과 시장, 도로, 광장을 공격하라.”고 말했다. 테러가 발생하면 ISIS는 매번 배후를 자처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3년간 라마단마다 ISIS에 의한 테러로 수백 명이 희생됐다.”며 “라마단이 테러리스트들의 극악무도한 이데올로기로 완전히 뒤틀렸다.”고 비난했다. [GNPNEWS]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이사야 52:7) **기도** | 주님. 전 세계의 약 16억 명의 무슬림들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을 들려주소서. 라마단 기간을 통해 고통당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 르완다 교회 안에서

나란히 놓여있는 목직 한 원목의자들, 새로 칠한 듯 온통 새하얀 벽이 찌는 듯한 여름 한낮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더위를 식혀줄 것 같다. “누구 없어요?” 자물쇠가 걸려있는 교회 문에 매달려 투명한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이들. 한 꼬마는 유난히 키가 작아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있

다. 들어가 보고 싶은 간절함...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보고 싶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던 키 작은 삭개오가 그랬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너무 높고, 멀리 계신 분이였다. 그러나 주님이 그 간절함을 아셨다. 주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시고 그날 밤 그의 집에 유하셨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까? 나도 저 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망설일 때, 주님은 주저 없이 그 문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분은 병자와 창녀와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누가복음 19:10)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38)

예수 믿는 인간들은 꼴도 보기 싫습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당신은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었거나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신 사과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오

늘 저는 당신께 더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정말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사실 남에게 더 나쁘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고 평가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악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 사람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은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죄짓고 용서받았다고만 하면 다인가?”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



일러스트= 박남희

는 죄인과 자기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후자를 공의가 아닌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GNPNEWS]

*** 신앙상담 전화 개설**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INSIDE

- 02 뉴스** | 아시아 파키스탄 정부, 한국인 추방 결정
- 03 기획** | 미국 美, 동료 위해 기도의사 밝힌 교직원 징계
- 05 인터뷰** | 김정옥·김현의 집사 부부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이스라엘의 영적 온도계, 성전
- 08 뷰즈 인 북스** |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간 통해서’



아시아

파키스탄 정부, 한국인 추방 결정

파키스탄 정부가 지난달 남부에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조직원들에게 납치된 뒤 살해된 20대 중국인 2명을 가르친 한국인 선교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기독교언론인 굿데이뉴스가 23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에 있는 중국계 기독교 인권 비영리단체인 차이나에이드는 한국인 선교사를 구속시킨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 회장인 밥 푸 목사는 “파키스탄에서 ISIS에 의해 무고하게 살해된 2명의 중국 기독교인 교사의 죽음을 그곳의 한국 기독교 선교사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공신 선전기관의 반응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푸 목사는 “이 두 명의 중국인이



▶ 지난 달 24일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 주 퀘타에서 무장한 괴한 3명이 하얀 차로 중국인 2명을 납치하는 모습이 포착된 CCTV장면(출처: Shanghaiist 캡처)

기독교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파키스탄에서 한국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을 했더라도 파키스탄 사람들을 향한 이들의 자기를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희생적인 사랑과 순교정신은 영원히 칭찬받고 기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에 일어난 이 ISIS

테러 행위에 대해 국제 사회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야 하며, 파키스탄 정부는 종교와 상관없이 이 두 명의 중국인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과 같은 무고한 인도적 봉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NPNEWS]

아메리카

美, 女축구 선수 국가대표 탈퇴 “동성애 유니폼 거부”

미국의 한 여자 축구선수가 유럽 국가와 친선경기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이 프라이드’ 유니폼을 입지 않기 위해 대표팀에서 자진 탈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축구국가대표팀은 이달 초 열린 스웨덴과 노르웨이와의 친선 경기에서 이 유니폼을 입기로 했다. 그러나 평소 기독교인으로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던 재일린 힌클 선수는 이같은 행동은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대표팀 명단에서 자신을 뺄 것을 요구하고 시합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일린 힌클은 평소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성경 구절과 이미지를 올리며 신앙심을 드러냈다. 힌클은

자신의 트위터에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해 “만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인생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때 내 영혼은 죽음에 이르도록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힌클은 또 지난 2015년 미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게이 프라이드’ 로고를 십자가로 바꿔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과 거부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믿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최고의 삶을 다 버리고 가장 낮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고백했다.

이 신문은 “힌클 선수의 신앙에 비춰볼 때 친선경기에 국가대표로서 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은 당연한 일 같지만,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GNPNEWS]



▶ 미국 여자축구선수들이 동성애를(LGBT)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이 들어간 ‘게이 프라이드’ 유니폼을 입고 훈련하고 있다(출처: ussoccer 캡처).

한국

한국교회 성도 10명 중 7명, ‘성경에서 삶의 답을 찾았다’ 밝혀

최근 국내 성도들의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72.6%가 ‘성경에서 삶의 답을 찾았다.’고 대답했다.

최근 드라마 바이블을 발표해 관심을 모은 지앤엠(Grace & Mercy) 글로벌문화재단이 만 19세 이상 한국성도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개신교인 성경읽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체 56개의 질문으로 실시됐다.

성경을 읽을 때의 느낌에 대한 응답으로는 ‘깨달음이 있다’ 54.6%,

‘이해가 안 간다’ 38.8%, ‘감동 된다’ 36.5%, ‘분량이 많다’ 35.4% 등이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72.6%는 ‘성경에서 삶의 답을 찾았다’고 대답했다.

성경을 가끔이라도 읽는 비율은 74.4%, 지난 1주일간 성경을 읽은 비율은 71.8%, 1주일 평균 성경읽기 시간은 1시간 45분으로 나타났다. 성경통독 경험자는 46.3%로 절반 가까이 되었고, 통독경험자의 평균 통독횟수는 2.9번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성경공부를 경험한 개신교인은 절반(50.9%) 정도로

집계됐으며, 공부 방식으로는 ‘교회 소그룹’(34.7%)이 가장 높았으며, 지난 1년간 주로 공부한 성경은 ‘신약의 복음서’(24.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 1년간 기독교 서적을 읽은 경험 있는 성도들은 45.7%, 평균 독서 권수는 2.6권으로 조사됐다.

지앤엠이 최근 출시한 드라마바이블은 국내 배우와 성우 100여명의 목소리로 낭독한 오디오 성경으로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돼 성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6.19 ~ 7.2)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전 세계 난민 6560만 명...3초마다 한 명 집 잃어

전쟁, 폭력, 박해 등으로 인한 전 세계 난민 수가 지난해 6560만 명으로 사상 최고에 달했다고 유엔난민기구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해 새로운 실항민 수는 1030만 명으로 매 3초마다 한 명이 집을 잃은 셈이다.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난민 중 단 한 사람도 잊은 적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들을 이끄사 복음을 들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포르투갈 폭염 속 최악의 산불...최소 62명 사망

포르투갈 중부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최소 62명이 숨지고, 약 60명이 다쳤다고 17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희생자의 상당수는 도로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 속에서 영혼들을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긴급한 복음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옵소서.

콜롬비아 남성 동성애자 3명 ‘한지붕 한가족’...첫 법적 인정

남미 콜롬비아에서 남성 동성애자 3명의 결혼이 처음으로 법적 인정을 받았다고 13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들은 서로에 대해 상속권 등을 보유하게 되며 이혼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여, 악을 제도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야 마는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어떤 제도도 인간을 결코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존재적 죄인을 십자가로 부르시는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웬비어 사망에 미국서 ‘북한여행 금지론’ 힘 실릴 듯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훈수상태로 귀국한 대학생 오토 웬비어(22)가 19일(현지시간) 사망함에 따라 미국에서 북한 여행 금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하나님. 이 일로 북한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북한의 완악함이 복음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7년 7월 1주 ~ 7월 2주

7월 1주(7.3~7.8)

-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 (전**)010-5337-2771
- ▶광주 북구 / 십자가사랑교회 (김**)010-6280-4419
- ▶경기 부천 / 산돌교회 (김동욱)032-324-6539
- 7.3-4,6-7(매일 10~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 7.3-7(매일 14~19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7.5(00~24시)

- ▶경기 수원 / 진흥교회 (남**)010-8268-6879
- 7.6-8(07~19시)

- ▶전주 완산 / 전주은혜샘교회 (정**)010-4272-9905
- 7.7(08~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 7.7(22시)~8(22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7월 2주(7.10~7.15)

- ▶광주 서구 / 십자가복음교회 (김**)010-9883-2347
- ▶부산 남구 / WMM 부산지부 (김**)010-8810-4641

7.10~11,13~14(매일 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010-8432-3698

7.10~11(매일 09시~21시)

-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 (김**)010-3290-4316

7.10~14(매일 14시~19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인아)031-432-1590

7.12(18시)~7.14(21시)

- ▶경기 부천 / 처음사랑교회 (황**)010-7766-3100

7.14(08시~20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010-4128-0448

7.14(22시)~7.15(22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010-7766-3100

美, 동료 위해 기도의사 밝힌 교직원 징계



▶ 토니 리처드슨(왼)은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에 종교 차별을 받았으며 불만을 제기했다. 그녀는 종교 자유 전문 법률 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의 변호인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출처: Kennebec Journal 캡처).

미국 메인 주 어거스타에 있는 한 학교에서 동료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말한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고 최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이 학교 직원 토니 리처드슨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료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한 후 '경고'를 받았다.

리처드슨은 동료와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동료는 리처드슨이 자신

이 곤경에 빠지길 바라는 기도를 한다고 학교 당국에 말했다는 것이다.

그 후 리처드슨은 학교 당국으로부터 정교(政敎) 분리 원칙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표현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경고장을 받았다.

리처드슨은 학교의 결정에 대하여 "직장 동료에게 기도해 준다는 이야기로 징계를 받은 것에 놀랐다. 만약 동료들과 나눈 믿음에 대

한 사적인 논의를 누군가가 듣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리처드슨의 변호를 맡은 티머시 우드록 변호사는 "직장동료와 믿음에 관한 사적인 대화를 이유로 그녀가 받은 학교 당국의 조치는 부당하다. 법은 직원들이 일터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학교 당국을 고발했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국제팀

美 기독교, 임신한 십대 여학생 졸업식 참여 불허

미국의 한 기독교 학교가 혼전 임신한 십대 여학생에 대해 부도덕성을 이유로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메릴랜드의 헤리티지 아카데미는 지난 6월초 치러진 졸업식을 앞두고 "우리가 이 학생을 징계하기로 한 것은 학생의 임신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녀의 부도덕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그녀의 부도덕함이 이 상황을 초래했지만 태아를 낙태하지 않기로 한 선택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교측은 졸업식장에서 졸업장 수여는 불허했지만 졸업장은 수여할 계획이다.

학교측은 이 학교 모든 재학생들은 입학할 때 '모든 일에 정결할 것'이라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수록된 서약서에 서약했으며, 이 조항은 '성적 부도덕 및 술, 담배, 불법 약물 사용 같은 것

을 금하여 나의 몸을 보호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지는 이 학생이 평균학점 4.0인 우수한 학생이며 그녀는 이 일로 학생위원회 회장직을 사임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일로 학교 이사장직을 사임했다.

이와 관련, 미국학생생활(SLA)이라는 비영리단체는 "학교의 결정은 학교공동체에 혼전 성관계 뿐 아니라 임신 자체가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도록 했다."며 이같은 학교측의 처사에 반발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훈육과 징계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은 그녀의 부도덕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이기에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며 징계는 그녀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국제팀



▶ 메릴랜드의 헤리티지 아카데미(출처: 구글 사진)

힌두 강국 위한 '주문제작형 아기' 출산 캠페인



▶ 출처: TODAY online 캡처

인도 극우힌두주의 단체가 순수 인도 혈통을 지키기 위해 '주문제작형 아기' 캠페인을 벌이고 이들을 통해 힌두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독교세계관으로 열방의 소식을 논평하고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는 최근 '총체적 인도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인도 극우성향의 단체 '아로가 바라티'가 벌이는 캠페인이 수많은 유태인학살을 가져온 나치의 '아리아인 순혈주의'를 따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려하는 입장의 칼럼을 게재했다.

브레이크 포인트는 최근 웹사이트에 존 스톤 스트리트와 로버트 리베라라는 전문가 기고문을 통해 "이 단체의 주문형 아기 제

작방침은 나치가 실시했던 작전을 그대로 따르는 행위"라며, 이는 순수 혈통을 추구함으로써 국가의 힘을 강화하겠다는 면에서 동일하다고 말했다.

'아로가 바라티'의 지침에 따르면, 순수 힌두주의 아기를 출산할 계획을 가진 부부들은 3개월간 몸을 정결하게 하며 행성의 케도에 맞춰 부부관계를 갖고 임신 이후 철저한 금욕생활, 식이조절 등을 해야 한다. 이같은 방침은 인도의 전통 의학이나 점성학과 더불어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규정을 모두 지켰을 때, 평범한 두뇌, 검은 피부와 작은 키의 부모에게서 '빠어난 두뇌'와 '흰 피부' 그리고 '큰 키'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으로 믿고 있다.

한편, 힌두 민족주의 정신인 '힌두트바'를 신봉하는 단체는 이같은 힌두주의 정신에 따라 태어난 아이들이 힌두종교에 기반한 강대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본 자원이라고 믿고 있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국제팀



▶ 인도 극우 힌두주의 단체 RSS의 모습(출처: Hindustantimes 캡처)

"이 악한 세상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궁금해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1670-3160 상담 사역 시작

"세상에 이처럼 악한 자가 활개 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기가 정말 싫어요."

기독교 신앙이나 복음을 누리는 삶에 대한 의문을 상담할 수 있는 전도용 상담 전화 복음의 소리 '316전화'가 개설됐다.

본지를 발행하는 복음과기도미디어는 전도용 상담 전화(1670-3160)를 개설, 6월 하순부터 본격 상담사역을 시작했다. 이 상담 전화는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발행하는 '복음기도신문'이나 전도용 도서 '내가 급하다 뜯어주는 전도편지100(저자 김정화)'(7월 발간 예정)을 읽고 믿음의 삶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316전화'는 복음의 핵심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상담서비스는 처음부터 선명하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겠다는 목적을 표방하



고 있다. 또한 전화 상담 신청자가 일차적으로 신앙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담 신청자가 신앙을 갖기로 결정한 경우 지역교회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계획이다.

현재 믿음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된 상담 섬김이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불신자나 신앙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상담전화 ☎ 1670-3160 문의 ☎ 070-7417-0408~10, 이메일 gnmedia@gnmedia.org [GNPNEWS]

기획 | 조선선교열전 (3) - 전라북도 편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수정 통해 한국 선교길 열리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2주년을 맞고 있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수정

세례 후 이수정은 츠다 박사와 일본교계 지도자들, 외국인 선교사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기독교 진리에 가까이 나아갔다. 그는 도쿄 외국어대학 조선어학과 교수로도 재임했는데, 일본 교회잡지 '칠일잡보(七日雜報)'와 일반 신문, 기관지 등은 그에 관한 기사를 자주 내며 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높은 보수의 보직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수정은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요코하마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H. Loomis) 선교사와 함께 성경번역에 착수했다. 1884년까지 그들은 한문성서에 한국식 토를 달아 우리말로 번역하여 읽었던 '현토한한(懸吐漢韓)'으로 4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하였다. 1885년에는 그중 마가복음을 국문으로 번역, 미국성서공회의 자금지원으로 인쇄, 간행했다. 이는 서울 말로 된 국한문 번역이라는 점에서 만주 등에서 활동했던 로스 선

교사의 서북어 한글 번역과 달랐다. 미국의 '바이블 소사이어티 레코드' 1885년 5월호에는 이수정이 번역한 주기도문이 게재되었다. 이 역시 로스 선교사의 주기도문이 있지만 한국인 최초의 번역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무엇보다 이수정이 개신교 선교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것은 이 땅에 선교사들을 불러들인 것이다. 그는 '조선의 마게도냐인'이었다. 그는 1883년과 84년에 '조선의 사정(Condition of Corea)'이라는 서한 형식의 글을 기고해 조선 선교의 긴박성을 호소했다. 루미스와 녹스 선교사는 이것을 미국의 '바이블 소사이어티 레코드'와 '미셔너리 리뷰'에 발표했다.

"우리나라 1천만 동포는 아직까지 참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이교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구세주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나

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조선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과 상의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일본에 보내 스스로 조선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를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만일 나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나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이수정의 호소문, 언더우드를 부른다

이수정 이전에도 중국과 일본 주재 선교사들이 동일한 요청을 했지만, 이수정의 호소는 조선인의 요청이라는 점에서 중요했다. 이수정의 편지는 젊은 신학생들의 마음을 조선으로 돌렸고, 뉴저지 뉴

브런즈윅 신학대학생 한 명이 선교를 자원했다. 그가 바로 언더우드였다. 언더우드는 자신이 속한 RCA교단과 미국 장로교에 과송 요청 편지를 보냈다.

"저는 해외 선교 사역에 나서려 하고 있었지만, 몇 개월 전 조선인들 중에 선교사를 파견해 달라는 진지한 호소를 읽기 전까지는 어느 선교지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부부는 요코하마에 도착했다. 그들은 이수정을 만나 한국어를 배우고, 그가 번역한 국문으로 된 마가복음을 들고 인천 제물포항으로 입국했다. 조선은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자국어 성경을 가진 선교역사상 보기 드문 나라였다.

언더우드, 호남 선교의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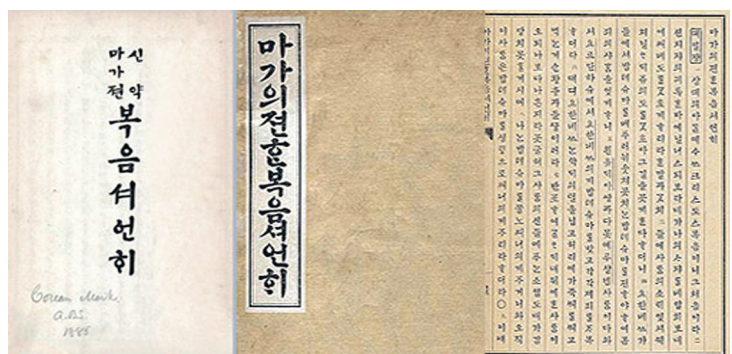
이수정은 주일이 되면 조선 유학생들을 모아 성경을 연구했다. 7명 모였던 유학생들이 30명이 넘으면서 자생적인 조선인교회가 도쿄 한복판에 세워졌다. 이것이 후일 '재일도교한인연합교회'의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이수정은 국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1886년 5월 정부로부터 귀국명령을 받고 개화파를 적대시하던 당시 집권 세력에게



▶ 젊은 시절의 언더우드 선교사(1859~1916)

즉시 처형당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그의 배교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정의 고급관리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가, 일본에서 활동한 4년에 불과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되어 조선 선교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수정이 부른 언더우드는 또 다른 호남 선교사를 부르는 통로가 되었다. 1891년 9월 안식년을 맞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각지를 돌며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연설했다. 이때 그의 강연을 들은 미국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 7명이 호남(湖南)지역에 파견되면서 호남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계속> [GNPNEWS]

참고문헌: <전북선교 120주년과 예수병원 설립 115주년 기념 포럼, 2012> 외



▶ 이수정이 번역한 국한문 혼용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1885)' 표지(왼쪽)와 이후 순 한글로 개역한 '마가의 전한 복음서 언해(1887)' 표지(출처: 문화재청)

선교 통신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가 소개한 이라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소개한다. <편집자>

이니네베평원(Nineveh: 성경의 니느웨지역)은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로부터 점령되기 전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2014년 ISIS가 마을을 점령하자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살길을 찾아 떠나게 되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ISIS로부터 해방된 지금, 이라크계 그리스도인 노인 자레파는 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투옥을 경험하며 무슬림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시기를 경험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용감히 주님의 편에 서서 악을 대적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면서 ISIS에 맞서 싸운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대제사장 바깥뜰에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자레파도 ISIS의 위협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 주님을 부인하였다.

과라코쉬(Qaraqosh) 지역 사람들은 약 이천 년 전 예수님께서 친히 쓰시던 고대 아람어와 연관이 있는 시리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만 보아도 이 지역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과 연관됐는지를 알 수 있다. 노인 자레파는 이러한 전통을 자랑스러워 했다.

당시 이 지역은 이미 ISIS가 이라크군보다 우세한 상태였다. 그러나 자레파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남편 때문에 피난길에 오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가능하다면 오랫동안 집에 남기로 했고 저자세를 취하며 행적을 삼갔다. 그러나 이곳에서 평화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자레파는 곧 깨



▶ 돌아온 이라크 성도들이 종려 주일에 거리를 행진하며 기뻐하는 모습(출처: 오픈도어 선교회).

닫게 되었다. 얼마 후 남편은 이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이웃이 사는 곳으로 이사했는데 그때 ISIS 병사들은 반복적으로 그녀와 함께 사는 이웃들을 위협했다. 그들 손에 만져지는 값비싼 것이면 무엇이든 강탈해갔다.

한번은 이웃 중 한 남성이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몰래 살해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구덩이에 파묻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를 다시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자레파는 ISIS 병사들이 침입했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었다. 자레파

의 집에는 십자가와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이것은 ISIS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품들이다. 무언가 약탈을 하기 위해 집에 침입한 ISIS 병사들은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더니, 십자가에 침을 뱉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것은 죄예요." 그녀의 말에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총을 겨누고 다시 협박하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자레파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야 말았다.

그녀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이 끔찍한 일을 회상할 때마다 엄청난 수치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았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다 알지 못하지만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 깊이 결단했다. [GN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복음을 만난 후,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 흔히들 가장 안정적인 시기라 말하는 나이 마흔이 되기 전, 39세가 되던 해 11월. 한국에서의 터를 모두 허물고 선교지로 떠난 김정옥·김현의 집사 부부(성남 선한목자교회). 선교사라는 이름보다 작고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았다.

- 어떻게 선교지로 떠날 결정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김정옥(이하 정): “저는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서른 초반에 복음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고민해보니 제겐 시간이 가장 중요하더군요. 그래서 마흔이 되기 전, 1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보자는 생각이었죠.”

김현의(이하 현): “저는 남편과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2009년에 십자가 복음을 만난 이후, 여러 훈련들을 통해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받고 남편에게 나눴어요. 선교는 젊은 시절 안정적으로 돈을 번 후, 노년에 나가는 거라고 하면서 꿈쩍을 앓더군요. 남편은 당시 잘나가던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했어요. 그것도 잠시, 남편의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고 퇴사하게 되면서 복음 앞에 서게 됐죠. 2012년, 감리교선교사훈련원(MMTC)을 통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나가려고 전심으로 훈련을 받으며 준비했어요.”

- 이후 선교사로의 길이 열렸나요?

현: “아니요. 훈련만 받으면 쉽게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높은 장벽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NGO 단체를 통해서 가야 하나? 아니면 가진 것은 얼마 없지만 무작정 열방에 나가서 한번 버려볼까?’ 다양한 생각을 해봤죠. 그렇게 막막한 중에 교회에서 파라과이 선교사님의 편지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파라과이’에 대한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죠.”

정: “‘나라를 품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기도하면 ‘이 나라다!’ 하고 답을 알려주시나? 궁금했어요. 하지만, 먼저 저희 둘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리라 믿었어요. 아웃리치 갔을 때 만났던 선교사님들로부터 요청이 와도 저희가 한 번도 마음이 맞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파라과이 기도편지를 보고 난 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 나라가 너무 궁금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아내에게



순종의 길을 선택한 김정옥·김현의 집사 부부

서 ‘우리 파라과이로 가요.’라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게 됐어요. 그것을 주님이 주신 사인으로 받았어요. 결정한 지 1년 후,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첫 만남에 다짜고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파라과이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를 받아 주실 의사 있으십니까?’라고 여쭙면서 전적으로 선교사님을 돕겠다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오셔야죠.’라는 선교사님의 대답을 듣고 1년 후, 파라과이로 가게 됐어요.”

“선교사님, 가겠습니다” 출정 선언

- 1년간의 준비과정은 어땠어요?

현: “꿈쩍도 안 하던 남편이 선교의 마음을 받으니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더군요. 나중에는 제가 너무 두려울 정도였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어요.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우리의 이전 경력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을 텐데 꼭 가야겠어?’라고 하니 꼭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아무 거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우리의 초점은 ‘선교’였죠. 가지고 있던 모든 짐을 보관하려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것들부터 버리기 시작했어요. 14년 동안 소중하다고 여겨서 꽂꽂 싸매고 있던 것들을 쓰레기장에 내버리니 그냥 쓰레기더군요.”

정: “저는 가족과 선교사의 꿈을 나누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릴 적 어머니의 인도로 교회에 다니게 됐지만,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5분도 채 되지 않아 쉽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주님이 두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저희의 든든한 지원자세요.”

- 귀한 순종의 걸음이지만 1년에 모든 것을 걸기에는 모험이라고 생각되진 않았나요?

현: “저희는 단지 1년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보고 싶었어요. 선교사의 꿈은 주셨는데, 제가 복음으로 살 수 있을지 짐작이 안 되더군요. 이전에 현지적응훈련으로 한 나라에 갔을 때, 복잡하고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15일간 못 먹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 “열방의 영혼을 사랑하며 사는 것, 언어를 습득하는 문제 등 많은 부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돌아온 후를 생각해서 여자를 남겨놔야 될 것 같은 주위 분위기에 사실 저도 걱정되긴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순종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보는 귀중한 시간이었죠.”

현: “한국을 떠나가기 전,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안정기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선교를 꿈꿔도 20대는 스펙(점수)을 쌓아야 할 것 같고, 30대는 발로 뛰어 정보를 모아야 할 것 같았어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 한 걸음도 떼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와 상황을 고려하는 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더군요. 당장 뭐 하나 포기하면 세상이 다 뒤집어 질 것 같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때’라고 하시면 바로 순종만 하면 되는 데요. 가끔 저희에게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더 이상 이 문제가 우리를 뒤흔들 수 없어요.”

순종을 결정하자 모든 두려움 사라져

- 처음 선교지에 도착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정: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국교가 가톨릭인 이 나라에서 제가 본 것은 예수님도, 마리아도 아닌 ‘까꾸빠’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이었어요. 성당 건물은 많이 보이지만 사제가 없어서 미사 한 번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언어라 걱정을 많이 했죠.”

현: “저희가 간 곳은 도심지에서 많이 떨어진 시우닷델에스테(동쪽 도시)라는 곳인데, 언어를 배우기에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2~3개월간 아무 말도 못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파라과이로 간지 3개월 만에 이전에 없던 온라인 스페인어 강의를 개설했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이들을 고민했지만, 현지인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열정이 더 커서 남편이 언어 배우기 시작했죠. 배운지 5개월 만에 현지인과 가볍게 대화할 수준이 됐어요.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어느 날 현지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도대체 왜 왔어?’”

정: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누구도 저희를 선교사라고 소개해주지 않았고 그저 우리 ‘알렉스, 루시아’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담대함이었는지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 선교사로 왔고, 다시 이곳에 오겠다.’라고 말했어요. 아침 7시에 하루를 시작해서 오후 3시면 마무리되는 파라과이에서 매일 낮에는 선교사님과 연합해 교회 건축 사역을 하고, 밤에는 일주일에 세 번 성도들을 대상으로 약기를 가르쳤어요.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가 생각나네요. ‘시작’이라는 말을 몰라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눈만 멀뚱 멀뚱. ‘끝’이라는 말도 몰라서 책을 막 뒤지면서 말했던 게요(웃음).”

현: “왜 한국인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섬기지?라고 궁금했다고 해요. 저는 현지인들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잘한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선물로 줬어요. 현지인들로부터 격이 없고 인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가가자면 이런 친구들을 얻을 수 없었겠죠. 우리에게서 큰 열매는 바랄 수 없겠지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에 관해 나누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 그런 일상들 속에서 많은 일이 있었겠죠?

현: “초반에 함선으로 전기가 나가서 두 달간 완전한 어둠 속에 살아야 했어요. 해가 지기 전 밥을 먹고 선풍기를 틀 수 없으니 매일 밤, 더위와 싸워야 했죠. 그런데도 이곳에 와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생각했던 선교의 방향과는 다르고, 여러 작은 어려움이 쌓이다 보니 제 자신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많은 경험과 훈련을 해왔으니 잘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든든하게 서고, 저까지 붙잡아 줬어요.”

정: “가진 능력도 많고, 모나지 않은 성격에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능력이 선교지에서는 필요 없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어요. 우리와 다른 언어와 예배 방식에 정말 많이 갑급했어요. 선교지에 있다는 것으로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는 아내와 함께 찬양 책을 보며 2시간 넘게 찬양을 드리기도 했어요. 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기도케 하셔서 회복됐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삶이었어요.”

나의 재능이 소용없는 선교현장

-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하네요.

현: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23살 때, 알코올 중독에 의한 간경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20대 초반에 친오빠가 저를 교회로 인도했고, 그때 남편을 만났죠.”

정: “안면이 있던 형의 동생이었는데 둘 사이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처음 보자마자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떨까? 너무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죠. 그 후 공부를 핑계로 만날 약속을 정하고 친구로 자연스럽게 지내다 28살에 동갑내기 결혼을 하게 됐어요.”

현: “허물이 없고, 자연스러운 남편 모습에 반했어요. 제가 약속에 늦곤 했는데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기다려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배려와 사랑을 받았는데도 이전에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많은 상처를 남편에게 줬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떠나지 않고 지켜줬어요. 복음을 만난 후,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됐어요. 주님께 떼쓰듯 가르쳐달라고 말했는데 ‘정옥이가 네게 준 사랑이 내 사랑이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100% 믿어졌어요.”

- 총체적 십자가 복음은 언제 만나셨나요?

현: “결혼 5년차가 되던 2009년에 미국에서 남편과 일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간다는 생각으로 둘 다 회사를 그만두고 재산을 정리했죠. 그런데 남편 비자가 잘못돼서 3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몇 년 동안 번 돈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죠. 그 때 아기를 간절히 원해서 시험관 시술까지 한 상태였는데 실패했어요. 소망이 다 끊어지자 기도하고 싶단 생각밖에 없었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성전에 충만한 영광의 복음 (1)

이스라엘의 영적 온도계, 성전

떠돌이 인생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왕은 그에 걸맞게 백향목 궁궐에 거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 초라한 성막 안에 계심'을 깨달았다. 그는 성전을 장엄하게 준공하여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하나님임을 드러내 보이길 원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사 다윗의 가문을 축복해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축복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언약의 성취였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7년 만에 웅장한 성전을 완공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왕상 6:12) 이라고 말씀하셨다.

성전건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관계의 장을 만든다

는데 목적이 있다. 참된 성전은 건물의 됴됨이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단지 건물을 멋있게 지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적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 고백이 가시적인 성전으로 표출되었을 뿐이었다.

성전 건축은 우리의 신앙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 되심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담아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할 것이며,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으셨다. 하지만 이들의 고백은 오래가지 못했다.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을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받을 것'(사 56:6-7) 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시리라는 약속이 다시 한번 선포되었다.

교회의 모형이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내려온 그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영망진창이 되어버렸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노라'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자로 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자신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만민



일러스트= 임이량

과 구별됐음(출 33:16)을 탄원하기 시작한다.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유일한 특징 때문이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 그 내용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허락하신 건물이 '성막'이었다. 그러므로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성막 혹은 성전을 어떻

게 취급하는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온도계와 같다. 출애굽기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성막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쇠락은 비로소 다윗을 통해 회복되었다(2016. 6.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LOG미션 대표)

English for Missions

영어, 복음을 입다!

GNF(Good News Friends)선교영어훈련학교는 복음과 기도가 삶의 결론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영어를 배워서 온 열방에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학교입니다. 2017년 가을 학기 선교영어훈련학교에 함께 할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 기간: 2017년 9월 초 ~ 12월 중순까지(약 4개월 합숙 훈련)
훈련 장소: 충남 서산시 헤브론 센터
교과 내용: 묵상, 예배, 기도24·365, 말씀기도, 복음 스테디, 영어 성경 통독, 복음 회화, 복음 문법, 나의 복음, 아웃리치 등
훈련 대상: 복음학교 수료자, 공동 생활과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훈련비: 280만 원(해외 아웃리치 비용 별도)
모집 기간: 2017년 7월 1일 ~ 31일 우체국 소인까지
접수 방법: 순회선교단 홈페이지 www.wmm119.co.kr에서 원서 다운로드, 기록 후 우편으로 접수

GNF(Good News Friends)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 010-3233-4641 | gfn2016@daum.net

GOOD NEWS FRIENDS
선교영어훈련학교

Interview <5면에 이어>

“복음이면 충분하지!”

현: “그때 한 지인이 일주일간 복음에 흠뻑 빠졌다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 나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복음을 더 알고 싶어서 남편에게 6개월간의 양해를 구하고 여러 훈련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정: “아내가 아웃리치를 갈 때면 통장 잔액이 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이 복음을 권하는 거예요. 그 권면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제가 쓸 돈은 남겨놔야죠. 그러지도 않는데, 누가 이 상황을 쉽게 받을 수 있겠어요(웃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자랑이었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안정된 터가 영원히 보장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때 총체적 복음 앞에 서게 됐죠. 교회를 오랜 시간 다녔지만 체계적으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제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물어요. 이보다 더 큰 대가 지불을 한다 해도 복음이 제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고요. ‘물론, 충분하지!’라고 답했어요.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 “기대할 수 없었는데, 현재 교회 파송 선교사로 자격을 얻게 돼서 절차에 따라 훈련을 받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결정하고 나니 이전보다 훨씬 큰 연봉제도가 들어왔는데, 거절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이 있으시다면요.
 정: “이전의 제 삶은 권위와 질서가 없는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사역을 일로 여기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2년 후 다시 열방에 나갈 때, 눈에 그럴듯한 준비보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GNPNEWS]

S.Y.



‘나의 재능’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영광에 끼워주셨다

평소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학 내 카페의 오픈준비를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이전에 난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내 힘으로 내가 잘 살고, 내가 족을 먹여 살려보고자 했던 일이라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관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아버지가 패혈증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집의 경제가 어려워져 동업자와 함께 카페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그때 나는 주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헌신에 대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주님으로부터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결국 마음대로 카페 운영을하기로 결정했다.

타는 듯한 영혼의 목마름

이후 1년간 안정적인 카페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하지만 너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6

일러스트= 이수진

분주해진 나머지 말씀과 기도는 뒷전이었고, 점점 내 영혼에 타는 듯한 목마름이 시작되었다.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기도훈련과정에 섬김이로 지원했다. 일과 섬김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육체의 고단함보다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피곤해도 참여할 수 있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셨다. 이후 카페를 정리하고 싶었

으나 동업했던 두 가정과 뜻이 맞지 않아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때, 6개월간 민음의 공동체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허락된 아기를 통해 이 훈련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아듣게 되었다. 그런데 아내는 홀로 출산하기 힘들다며 내 결정을 막아섰다. 당시 마음이 어려워져 있던 탈모까지 경험했다. 다 주저앉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6개월 후, 다시 기회가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일 된 아이를 두고 가야 하는 더 큰 결정을 해야만 했다. 지금 이때가 아니면 영원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한사코 말렸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됐다. 때마침 카페도 거의 손해 보는 일이 없이 다른 분에게 이양할 수 있었다.

“전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선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멀리서 듣게 되었을 때 주님께 신음같이 고백한 적이 있었다. “주님! 이 대학이 세워지는데, 저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나의 작은 소원을 결코 잊지 않으신 것 같았다. 너무 감사했다.

카페 오픈준비를 도와달라는 선교사님의 전화를 받은 후, 커피 기계에서부터 커피 한잔이 나오도록

쓰이는 여러 기구들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되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었다. 실제로 와보니 대부분 준비되어 있었고, 간단한 기구들과 음료를 만들 재료와 레시피 정도만 필요했다. 주님은 나의 재능을 쓰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끼워주신 것이었다. 너무 기뻐다.

이 카페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민음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을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꿈꾸게 되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6) 앞으로 모든 삶에서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더욱 주님만 사모하고 자랑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NPNEWS]

김사원 집사



회개 기도 끝에 눈 앞에 나타난 손가방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도마와 같았던 나

저는 주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의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성경책도 보고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면서 믿음을 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하여 높은 물질문화 수준에 이른 세상 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가 처한 처지, 즉 사회적으로 볼 때 종교인이라는 반동의 가정에서 태어나 머리를 들고 살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알게 되면 즉시 우리를 잡아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꽤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열악한 곳에서 답답하게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죄스럽고 자식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는 부모님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서

도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 마음이 편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점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싫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못 자국 난 손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던 도마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차에서 잃어버린 손가방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한 열차 안에서 손짐과 함께 중요한 문건과 기타 물건이 들어 있는 자그마한 손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큰일이었습니다. 그중에는 목사님의 설교내용이 적혀 있는 수첩과 녹음기가 함께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소와 성명은 물론 공민증과 여권증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물건이 보위부에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고 그만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열차 칸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안타깝게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악 된 생활을 하였기에 마땅히 매를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사로운 아들이 아



▶ 짐을 나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출처: daily nk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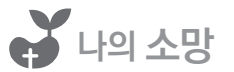
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때린다고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늘 지켜보는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개하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소리 내어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땅히 맞아야 할 매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도마와 같이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잘못할 때는 때리시고 회개할 때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주시다고 생각하니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채찍으로도 깨우쳐 주시려고 매를 주시니 이 매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빼앗

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심을 아오니 이제 그 가방을 찾게 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같이 믿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거듭 기도를 드리고 머리를 들어 눈물을 닦던 손을 내리는데 눈앞에 잃어버렸던 제 손가방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아니에요?”하며 어린 소년이 저에게 손가방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것이 꿈이나 생시나 말입니다. 기도를 드리고 눈을 뜨기도 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배신자와 같은 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하며 더디 믿을 수 있었습니까? 한순간도 저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조금도 동요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GNPNEWS]

<출처: 붉은 예수쟁이(문광서원)>



성경은 성경의 해석자

토마스 왓슨은 17세기 영국이 낳은 유명한 청교도 목사이자 신학자이다. ‘인명부와 연대기(케네트 제)’에 기록된 그의 일생을 보면 그는 런던에서 실력 있는 학자, 인기 있는 설교자, 특히 개인 경건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다.

왓슨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고 지금도 책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 사후 후 같은 그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오직 성경’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성경묵상과 해석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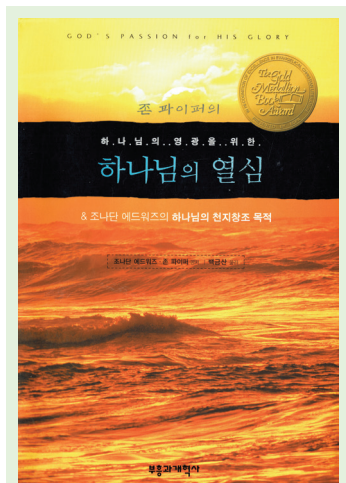
“성경이 성경의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그러셔야 한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나 아닌 다른 것으로는 자를 수 없다. 이처럼 성경도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GNPNEWS]



뷰즈인 북스
Views in Books

존 파이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간 통해서’



존 파이퍼, 조나단 에드워즈 저 |
백금산 역 | 부흥과개혁사 |
357P | 2003

왜 사는가?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삶의 목적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외부의 어떤 상황도, 내면의 어떤 치열함에도 함몰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많은 영향

을 받은 저자는 이 책에서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나가고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선교에 헌신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에 있는 질문과 답처럼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즐거워할 때라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기뻐하는 분이어서 자신의 내적인 영광을 외적으로 드러내길 원하신다. 태양이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외적으로 영광을 발산(전시)하는

속성을 가지셨다. 태양의 빛을 받은 존재들이 비로소 각각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비치게 되면 인간의 본연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즐거워하고 만족하게 된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과 예배가 올려진다. 이것이 천지 창조의 진정한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간을 볼 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영광의 속성은 나타난다. 나는 영광의 속성을 몰랐기에 남편과 아이들의 즐거움이 어떻게 나의 즐거움이 되는지 몰랐다.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는 열방의 부흥이 나의 기쁨이 되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외쳤지만 정작 남편과 아이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여기지 못했다. 이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아내의 영광, 엄마의 영광이 무엇인지 더욱 깊이 다가온다.

나를 만족해하는 남편을 보는 즐거움이란! 아이들의 기쁨을 바라볼 때 아이들보다 더 크게 기뻐하는 엄마의 마음이란!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클수록 연합 또한 영원히 증가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적 영광이 인간에게 여전히 있어 외적으로 드러내고야 만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공의의 영광으로 진노를 쏟아부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비로운 구원을 베푸시는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열방을 구원하시는 은혜로 드러난 것이다.

공동체로 살고 있는 나는 지체들과 때로는 씨름하기도 하고 처참한 열방의 소식에 낙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낙심한 나를 말씀 앞으로

이끄신다. 그 자리에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 즉, 은혜가 나와 지체와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된다.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클수록 연합도 점점 더 순수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 영원하기에 연합 또한 영원히 증가한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흥분케 하는가! 선교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 행복과 연합이 영원히 증가한다는 사실 말이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행복하고 더욱 행복해질 것을 갈망한다. 하나님 손에서 떨어지는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순수한 연합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모든 교회가 이 순수한 열망에 함께 사로잡히기를... 마라나타! [GNPNEWS]

김은영 선교사

“오직 믿음” 2017 다시복음앞에 대회

10. 31~11. 3(3박 4일) 선한목자교회(성남)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 종교개혁기념 주간에 2017 다시복음앞에 대회가 선한목자교회(담임 유기성 목사)에서 열린다.

복음기도동맹 주관으로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믿음’을 주제로 다양한 영역의 증인들이 강의와 간증으로 참여한다.

이번 대회 강사로는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김용의 선교사(LOG미션), 이재만 교수(창조과학선교회),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 민경동 장로(전 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총장) 등 10여 명이 맡는다.

2011년 시작된 다시복음앞에 대회는 시대의 수많은 도전과 공격 앞에 복음기도동맹 선언문 및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복음과 기도를 삶의 중심 가치로 채택하고 2년마다 진행돼 왔다. 첫 번 모임인 2011년 대회는 ‘오직 복음’, 2013년 대회는 ‘오직 성경’, 2015년 대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매 회마다 3000~400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2013년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성도들이 참여하는 울산

다시복음앞에 대회가 열려, 지역의 부흥과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2017 다시복음앞에 대회는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온전한 믿음에 대해 집중 조명하며 각 영역에서 순종하고 있는 증인들의 믿음의 삶이 선포된다.

이번 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복음기도동맹 사이트(www.gpally.org)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복음기도동맹은 자신을 ‘예수생명’으로 고백하며 복음과 기도를 신앙의 핵심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해 연합하기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다. 현재 12000여 명이 선언문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이 동맹은 이같은 내용을 신앙고백으로 정리한 복음기도동맹 선언문과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예배, 복음, 기도, 연합, 권위, 소유, 선교 등 7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의 ☎ 070-5056-3208, 010-5938-4641(복음기도동맹 사무국) [GNPNEWS]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7. 6. 9 ~ 6. 21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은진 강종태 권혜령 김대혁 김사회 김선희 김수미 김승수 김영세 김유남 김유미 박건석 안병윤 이경희 이병송 이복길 이은주 임종태 장영선 장진 전성훈 조상국 최근희 최은정 최정숙 한성호 허금희 무명

교회 및 단체

그루터기교회 사랑샘교회 시흥지체교회 예당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주만교회 춘천웹시바교회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